2018년도 생통교육

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2018년 10월 24일 - 11월 7일 매주 수,금요일 오후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 문화탐방 ---- 남원 문화탐방

□ **주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주관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사)윤상원기념사업회

□ **후원 :** 광주광역시

■ 프로그램

구분	일시	주제	강사진
문화 강좌	10.24(수) 15:00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
	10.26(금) 15:00	**마을과 문화, 도시재생**	**민문식** (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센터장)
	10.31(수) 15:00	**폴리와 문화, 도시재생**	**유우상**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11. 2(금) 15:00	**전통시장과 문화, 도시재생**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11. 7(수) 15:00	**문화와 도시재생 광주의 현 주소와 미래**	**안평환**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답사	11. 9(금) 09:00	**남원 문화탐방**	

■ 목 차

1. 제1강좌 도시문화와 도시재생 ---------- 07
2. 제2강좌 광주 빛깔을 담은 주민 주도형 마을재생 ---------- 31
3. 제3강좌 광주 폴리와 도시재생 ---------- 43
4. 제4강좌 1913 송정역 시장 프로젝트 ---------- 53
5. 제5강좌 문화와 도시 재생, 광주의 현 주소와 미래 --------- 75

제1강좌 :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도시문화와 도시재생

조 용 준

(조선대 명예교수)

차례

1. 우리 도시문화의 현주소

2. 도시문화를 왜곡 시킨 도시적 요인

1) 자동차를 앞세워 만든 신시가지의 도시문화

2) 재개발이 파괴한 기성시가지의 도시문화

3. 집약형의 공동체문화 재생

1) 집약형도시 재생의 전략

(1) 도심공간구조 재편 및 도심문화 재생

(2) 기성시가지의 사람, 토지, 마을의 관계성 재생

(3) 골목길 문화의 재생

2) 공동체문화 재생의 전략

(1) 인간관계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회로 재생

(2) 도시문화를 통한 공동체 문화 재생

4. 결어

1. 우리 도시문화의 현주소

사람의 모든 생활상태가 문화이다. 생활이 초래하는 것은 문화적 산물이고,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 등은 문화적인 소산이다. 그것을 만들거나 부수는 것은 문화적 행위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화적 행위이다. 이처럼 후천적, 사회적으로 습득되어 진 것이 문화이다 (나루미 구니히로, 오사카대 명예교수). 형태가 행태를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면 관습과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된다. 도시에 문화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이다.

·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

· 도시가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 공동체가 붕괴 되고, 지역문제의 자율적 처리능력이 상실되고 있다.

· 소득 계층별 거주지가 드러나고, 기가 죽어가고 있다

· 자동차의 도시 지배가 강화되고, 도시와 대면성이 약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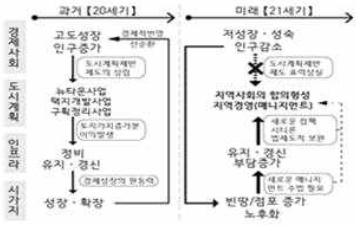
· 혈연가족이 붕괴되고, 1인가구가 보편화 되고 있다.

· 빈곤노인의 절연 생활과 고독사가 증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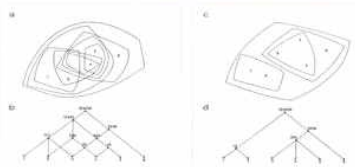
· 사람중심 문화가 파괴되고, 기계중심 문화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 동네가 사라지고 있다. 도시에 고향은 있는 것일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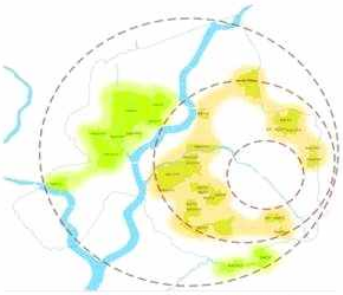
2. 도시문화를 왜곡시킨 2가지의 도시 요인



송준환 , 일본야마구치 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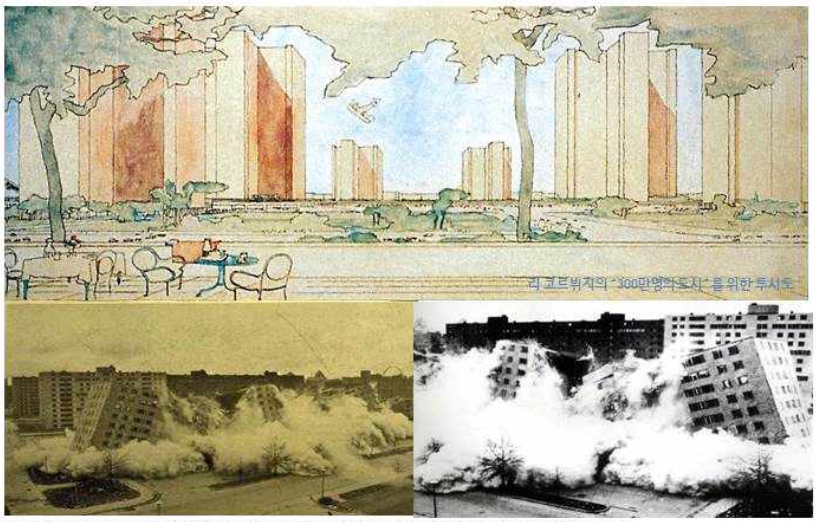
도시는 트리가 아니다(A city is not a tree)
a, b는 세미 래 티스, c,d는 트리, 트리는 단순한 원리의 집합인데 반해, 세미 래티스는 복수 집합의 중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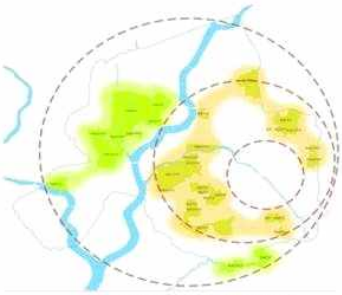
광주 택지개발 자구 (박준원 박사)

한국지리지 광주, P394

1). 자동차를 앞세워 만든 신시가지의 도시문화



1951년에 건축가 미노루 야마사키가 설계한 11층의 통일한 형태의 33동 아파트 (2870세대) 를 1972년 3월16일 폭파



광주 택지개발 자구 (박준원 박사)

한국지리지 광주, P394

■ 근대도시계획 사조의 비판

· 지역주의가 만든 도시형태와 문화 사라지고 있다.

· 가로 연속성 단절로, 활력이 사라지고 근린사회의 일체성이 파괴 되고 있다.

· 범죄증가, 유지관리비 증대, 지구온난화 초래, 소외감 증대, 도심 공동화심화, 에너지 증가가 가속 되고 있다 .

- 마쯔나가 야스미쓰-

■ 자동차를 앞세워 만든 외곽지역의 도시문화

· 부족한 주택 확보, 일정이상의 주거수준 향상에 공헌했다.

· 택지개발촉진법과 자동차를 앞세워 지나친 도시확산을 했다.

· 자동차로 인한 인간관계의 감소, 공동체 의식이 붕괴 되었다.

· 산업적 기능적 합리성 추구 함께 규모별, 소유형태별 주동을 배치 했다.

· 분리와 개별성이 지배하고, 공공가치를 잃은 물리적 도시가 되었다.

· 동네가 없고, 계층 문화가 고착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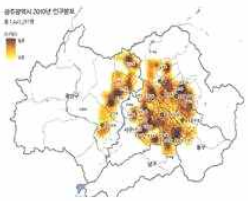
아파트는 경제적 생산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근대 도시정책인 기계시스템의 사회 답습 이다. 경제적 합리성과 기능성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면서 인간의 사회 활동보다는 생산 증가를 위한 기능적 활동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근대 주택 정책의 답습 이다

- 테드로우 폴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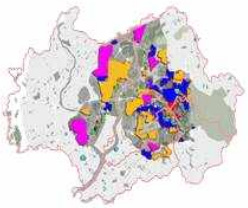
2). 재개발이 파괴한 기성시가지의 도시문화

■ 재개발이 파괴하고 있는 기성시가지의 도시문화

· 저소득층 주택을 감소 시키고 있다.
· 재정착이 어려운 사람을 더 열악한 지역으로 떠나게 하고 있다.
· 저소득층과 그렇지 않은 층의 거주지역을 구별하고 있다
· 골목길과 언덕, 단독주택이 만든 동네 문화가 파괴되고 있다
· 1인 가구의 절연생활,고독사를 증가 시키고 있다.
· 도시경관을 왜곡 시키고 있고, 도시와의 대면성을 약화 시키고 있다
· 재건축시기가 되면, 용적율 증가, 건축폐기물 발생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 산업사회 주도국인 영국은 물리적 재개발로는 도시활력이 어려워 도시재생으로 전환 했다



한국지리지 광주, P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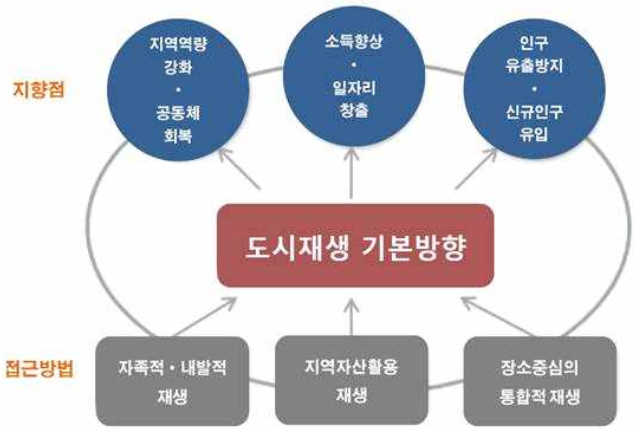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근대도시이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뉴타운 , 재개발 등은 파탄에 직면해 있다
- 마쯔나가 야스미쓰-

도시에도 동네다운 동네가 하나쯤 있어야 한다

3. 집약형 도시의 공동체 문화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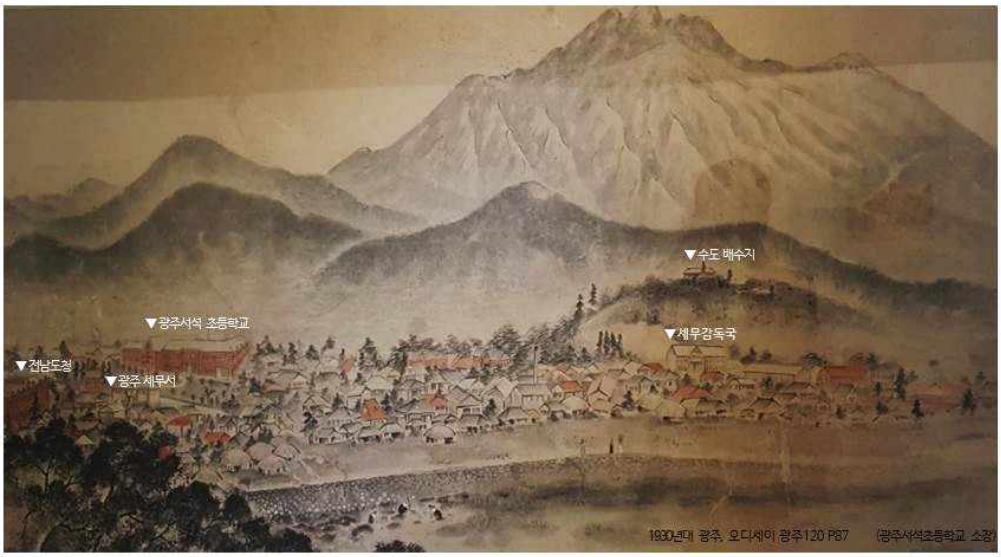
도시재생은 내발적 자세와 지역자산 활용에서 시작 한다

황희연, 제1기 광주 재생대학
(광주 도시공사 2015.11)

도시재생은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재생이다.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물리적 재생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지역거버넌스 구축 •지자체/주민/상인교육 •지역사회 재생 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 Community Empowerment	지역 공동체 기업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발굴 및 사업화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Community Business	부담 가능한 환경 개선 •소규모 질적 환경개선·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원 연계 •녹색기술 도입을 통한 저탄소 지향의 환경조성 Community Empowerment

류중석 교수, 제1회 광주재생 대학 (2015.11)



■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과 집약의 거점으로써 도심 재생
- 집약의 거점으로써 도심재생
-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 으로써 도시 축 강화

■ 주요 가로의 재생
- 주요 가로 재생
- 주요 상점가 재생
- 역사적 공공건물 재생

■ 기성시가지 재생
- 마을재생/ 골목길 재생
- 민간 건물 재생 / 주택및 아파트 재생
- 소규모 사회 통합 형 주거 창출

1) 집약형 도시의 재생 전략

(1) 도심공간 구조재편과 도심문화 재생 .

■ 인구는 미래를 결정하는 단서이다

- 한국은 지구상에서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다 –데이비드 콜먼–
-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가 될 것이다 – 해리텐트–
- 한국은 2100년이 되면 인구는 2000만 명으로 줄어 들것이다 –국회예산 정책처–
- OECD국가중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의 진입기간이 가장 짧을 것이다
-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 한국보건 연구원 –

■ 집약형도시를 위한 도심 재생의 필요성

- 인구가 감소가 심화 되면 무 거주 지역의 출현 과 함께 고스트 타운이 된다.
- 도시 유지관리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범위가 줄어 드는 도시축소가 필요하다
- 활력 진원지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도시의 가치와 집약성을 향상시키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 자가용사회에서 대중교통사회로 변화 시켜 교통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 집약성을 통해 재정부담, 거주환경의 열악, 방재 방범, 환경부하 등을 경감 해야 한다.

■ 인구를 감소를 고려 하지 않고,도시를 확장 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 2000년 OECD 일본 권고 –

집약형 도시구조 실현과 집약의 거점으로써 도심재생

■ 재생 관점1. 공공성과 시장성이 발란스를 가져야 한다

· 공공과 민간 등 도심 관련자 들과 협동이나 협력하여 공통의 비전과 수법을 공유 해야 한다.
· 도심활력이 여러 분야에 미치도록 문화, 관광, 환경정책은 물론, 도시계획과 융합 해야 한다
· 공공성과 시장성의 발란스는 물론, 시민적 지지, 대중적 문화, 상업적 색채를 가져야 한다

■ 재생 관점2, 타운 매니지먼트 수법을 활용 해야 한다.

· 지금까지는 공공재원으로 도시공간의 창출과 유지관리를 해왔다.
· 인구감소 등으로 재정이 약화 되면, 공공재원의 투입에 한계가 생긴다
· 도시공간을 단순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관리와 활성화 수법이다
· 시민주체의 조직과 재원, 활동을 바탕으로 공간을 재생시키고 관리하는 수법이다
· 미국에서는 도심 공동화로 재산 가치가 하락하자 지산소유자와 기업이 활용한 수법이다
· 일본에서는 개발이 되 않고,도로,하천, 상하수도시설이 노후화되고, 빈집이 생기면서 활용한 수법이다
· 일본에서는 " 도시재생추진 법인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 재생 관점3, 동시적 운동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 도심에서 사람 활동이 신호등에서 단절되지 않고 도심전체를 중첩적, 순환적, 입체적으로 순환 할 수 있도록 동시적 운동체계로 재편 되어야 한다.
· 보행이 자유로워서 항상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열려있는 장이 되고, 문화와 활력과 즐거움이 생성된다.

■ 재생 관점4. 민간(건축) 등과 연동하여 크고 작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비싼 지가로 인해서 규모 있는 공공공간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
· 소규모 공공공간 창출, 가로경관 개선, 개개건축과 인접하는 공공공간의 일체적 설계, 공공스페이스와 민간 스페이스의 중간 영역(인터페이스)의 확보가 필요하다
· 바르셀로나가 1992년 올림픽을 앞두고 쇠퇴지구를 소규모 재생을 통하여 그 효과가 주위로 파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폐허가 된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고, 소규모 광장을 설치하면, 광장에 접한 건물에 까페가 생긴다. 카페가 광장에 테이블을 내놓으면 활력이 생기도 주변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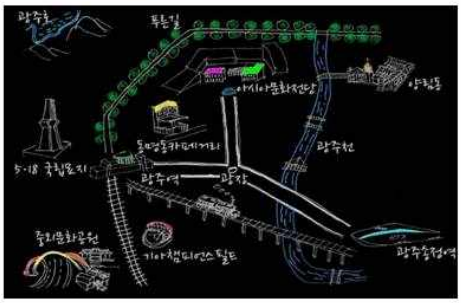
- 바로 셀로나 문화국장 건축가 오리엘 보이가스-

■ 재생관점5.

시가지에 널려 있는 작은 활력들이 쉽고 빠르게 도심에 도달 하도록 도시축이 권역의 중층성을 갖도록 운동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프랑스 파리

체코 프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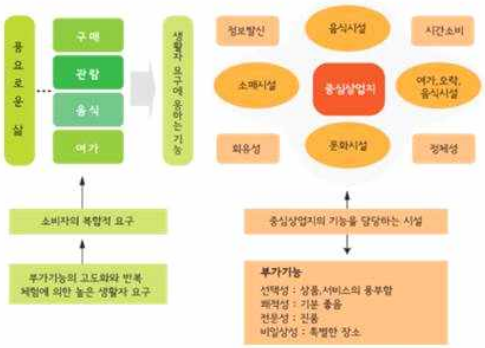
자료: 구니요시 건요코하마 도시디인 실장

주요 가로재생

자료: 구니요시 전요코하마 도시디인 실장　바샤미치(馬車道

주요 상점가 재생

상품의 성능과 가격이 평준화 되면 남는 경쟁력은 상품환경 뿐이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상점가는 사거나 먹는 등의1차적 기능 이외도 상점가가 연출하 는 시간소비, 정보발 신, 회귀성, 정체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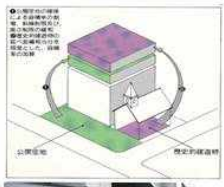
사다 등의 본질적 기능에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낮으면** 방문횟수는 감 소하 고,체류 시간도 짧아짐. 따라서 상점가가 **시간 소비, 정보발신, 회귀성, 정체성**을 갖기 위해 서는 선택성 , 쾌적성, 전문성, 비일상성이 있어야 함.

역사적 공공건축물 재생

요코하마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에 의한 도심활성화 프로젝트(Yokohama City Center Promotion by Art and Tourism)

크리에이티브시티 요코하마의 목표

1.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가 살고 싶어하는 창조환경의 실현
2. 창조산업의 집적에 의한 경제활성화
3.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의 활용
4.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만들기



자료: 구니요시 전요코하마 도시디인 실장

창조지역 일대 (크리에이티브・코어)
Creative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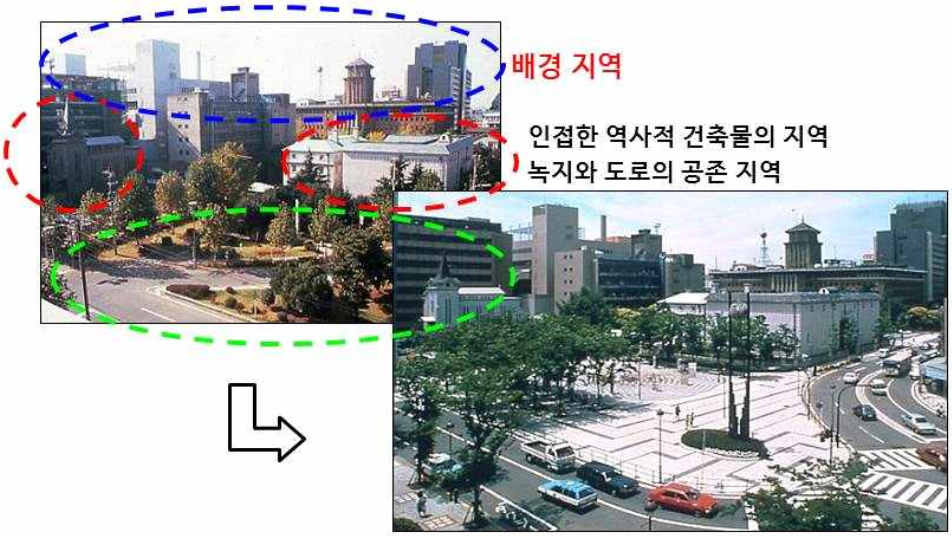
BankART 1929 Yokohama
구 제일은행 복원후(현 요코하마 아일랜드 타워)

■ 바샤미치(馬車道)역주변 역사건축물 재생

(구 일본유센창고)
ormer Warehouse of Nippon Yusen co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 영상연구과
(구 후지은행 / Former Fuji Bank)

자료: 구니요시 전요코하마 도시디인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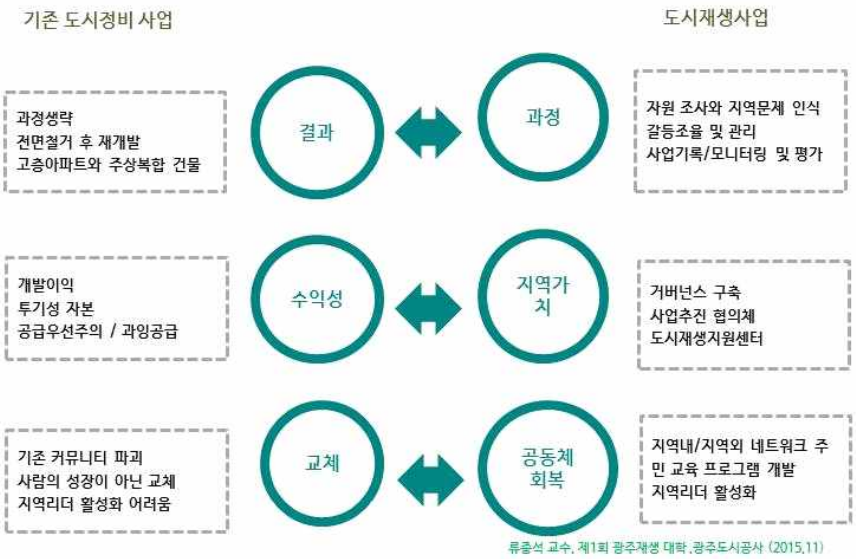
자료: 구니요시 전요코하마 도시디인 실장

- 사진: 김세훈 서울대 교수-

· **리스본의 Time Out Market.**

오래된 시장 건물을 개조하여 2014년 개장한 이 공간은 한 지붕 아래에 리스본 최고의 먹거리를 모으자는 것.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음식점 운영자들이 아닌, Time Out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미디어 회사가 주도. 전 세계 108개 도시에서의 경험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큐레이팅하는 것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음식 먹는 경험은 이도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중 하나라는 신념이 이를 가능케 함.
- 김세훈 서울대 교수-

(2) 기성시가지의 사람, 토지, 마을의 관계성



류종석 교수, 제1회 광주재생 대학 ,광주도시공사 (2015.11)

■ 기성시가지 재생 원칙

· 사람이 토지에 지속하는 생활에 자긍심을 상실하면 마을은 공동화가 된다
· 사람, 마을 , 토지 (건물)의 관계성 재생 되어야 거주공생, 지역공생, 환경 공생의 동네가 된다
· 골목길은 동네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혈맥이다. 골목길이 살아야 마을이 살고 도시가 산다.
· 투자자 중심 (경제적 관점)에서 거주자 중심 (사람관점) 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
· 주택공급 (철거의 시대)에서 공동체 회복 (사람의 시대)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

■ 재생 관점 1.

· 기성시가지는 주민이 사는 지역이다, 지역의 쇠퇴도, 재생도 주민의 문제로써, 주민주도가 필요하다
· 기존의 공간구조, 건물, 장소 등은 지역의 자산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 해야 한다

■ 재생 관점2.

·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커뮤니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 생산과 생활이 같은 농촌과는 달리,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의식을 확립하는 커뮤니티조직이 필요하다

■ 재생 관점3.

· 주민들이 지역의 잠재력이나 고유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예술과 연대를 통한 예술과 기술 등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이나 생업과 결합하여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을 갖는 자연순환의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사회 자본으로써 합의형성이 필요하다 .

■ 재생 관점4.

· 지역에 살면서 주민을 모으고, 커뮤니티 조직을 만들고, 합의 형성을 이끌어내는 일꾼이 필요하다
· 일본에서 1개기업유치 보다는 창조성을 가진 한사람의 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한 것도 이때문이다

기성시가지 재생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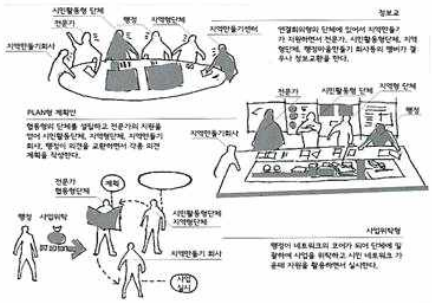
1. 사업 발굴에 앞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2. 사업비가 아닌 사업 발굴이 먼저다
3.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 부터 시작 한다
4. 재생대학은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5. 빈 건물, 빈 점포를 자원으로 인식한다
6. 예술가 유치에 주목한다
7. 사회적 경제를 추구한다
8. 여러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9.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관리 하는 기반을 만든다
10. 행정은 지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황희연 교수, 제1회 광주도시대학 강의(2015.1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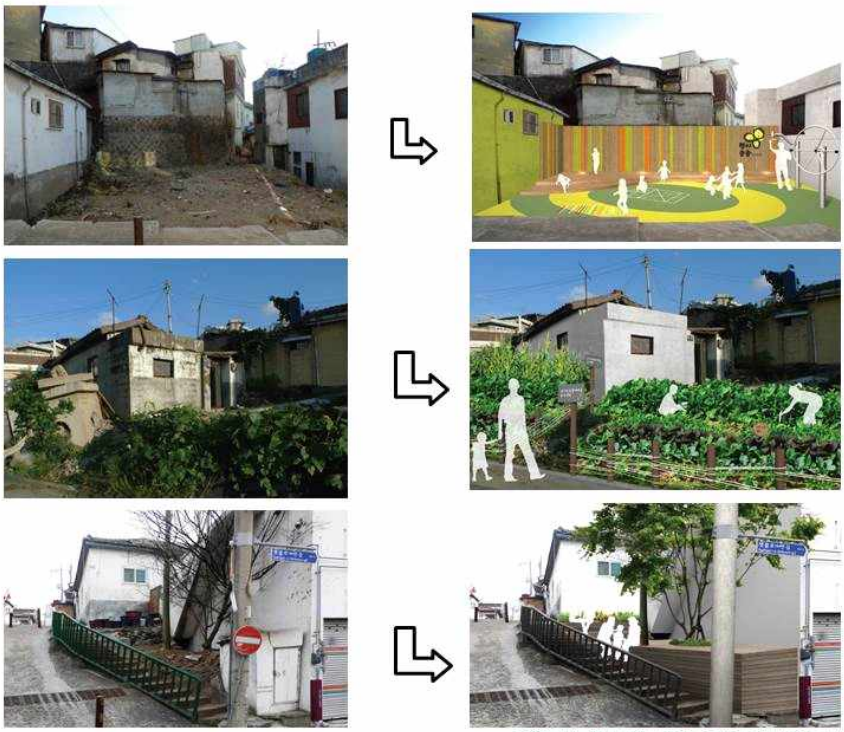
주민 참여형 재생 프로세스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층 주거지를 정비/개량/보존 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

1 : 마을의 현황을 파악한다
2 : 마을의 과제를 정리한다
3 : 마을의 가치를 같이 발견한다
4 : 마을의 가치를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한다
5 : 마을의 장래 비전을 정리한다
6 :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행한다.
7 : 실행체제,실행 수법, 실행시기, 우선순위를 정한다



■ 서울은평구 산새마을 (2015.8)



김경배 교수 , 제1기 광주재생대학, 광주도시공사 (2015.11)

골목길 재생

자료:동명대 김홍기 교수

· 조망이 좋고, 역세권이지만, 자동차가 들어 갈수 없는 경사지로 접근이 불리.
폐허 혹은 해체 위기에 직면, 신축 등 환경개선에 어려움

· **빈집재생 목적으로 2008년에 NPO 오노미치 빈집 프로젝트 설립**

- 건축가나 목수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활용방법에서 시공까지 맴버들이 주도
- 일반시민이 참여 하는 이벤트나 워크숍실시, 다양한 게스트 초청하여 빈집 정보교환
- 빈집 물건을 버리는데에 젊은이, 프리렌스, 주부등 정리정돈팀이 아르바이트
- 이주자증가 , 젊은 층 증가, 관광객증가, 새로운 문화와 커뮤니티 재구축

류종석 교수, 골목길 영화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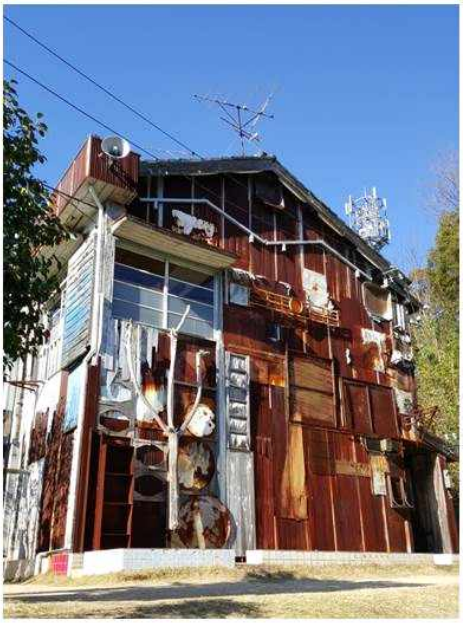
가나자와, 히가시 차야거리

· 제인 제이 콥스는 공동체 문화와 소상공인 산업을 발전 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골목길을 주목. 주거와 상업활동이 뒤섞이면서도 거리는 짧고, 촘촘 하게 이어져 있고, 낡은 건물과 신축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골목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을 골목문화의 동력으로 꼽았다.건축학은 공간디자인을, 문화사회학은 예술가와 문화예술시설을, 유통경제학은 접근성, 배후인구, 임대로를 골목상권의 조건으로 강조했다.

· 이들을 다 갖춘다고 해서 모두 골목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 있고,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인 거리만이 매력적인 골목문화를 생산 한다. 골목 상권의 경쟁력은"문화 인프라,임대료, 기업가 정신,접근성, 도시디자인, 정체성"의 6가지 조건임을 성공한 골목상권에서 발견되는 공통 요인이다.

- 모종린, 골목길 자본론-

빈집 재생



· 20세기 초 미국에는 수많은 매력적인 대도시가 있었다. 이들 대도시에는 폭이 좁고 꼬불꼬불한 가로가 구석 구석까지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있었다. 주된 교통수단인 노면전차가 도시 구석구석까지 운행 되고 있어서, 인간적인 삶을 꾸려 가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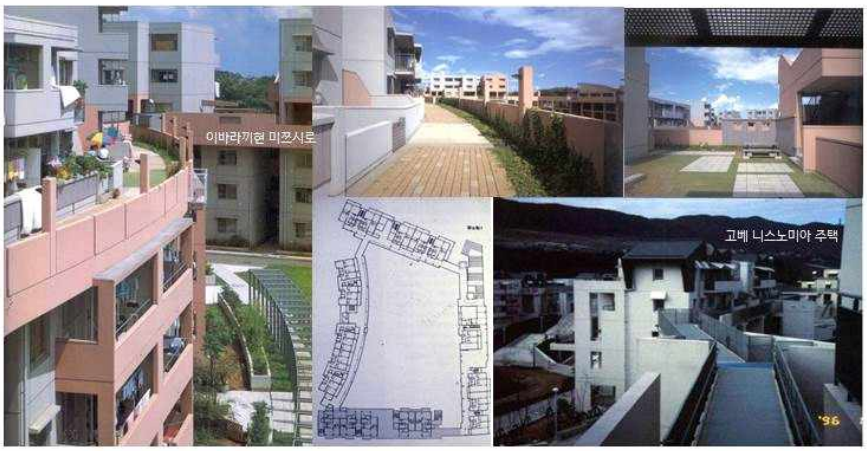
-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제인 제이 콥스 -

사회 통합형 주택

· 한국사회에서 초 고층 아파트 거주는 성공의 징표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지상의 고통과 절망을 못 느낀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 지지만, 그러지 말아야 한다

· 한국의 후진적 주거문화는 아파트 사회로 행군으로 인해 이 땅의 평범한 시민, 미래세대로 하여금 좌절하고, 주눅 들도록 한 것이다

- 전상인 서울대 교수-



일본에서는 1인가구의 절연생활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적 관계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집단에 편입하여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공동성 문화를 갖도록 하고 있다

비바스니신마치_병원과 고령자주택의 복합개발

2005년에 카와사키시 주택공급공사와 민간병원이 협동계획한 사업으로 요양병상 85개의 민간병원과 서비스부 고령자임대주택 55호, 일반 임대주택 10호를 복합한 주택과 시설의 연계사례

병원(1-3층), 주택(5-11층)사이에 위치한 4층은 주택과 병원 기능의 연계와 융합을 위해 구성된 공용공간으로 '후레아이 광장'을 배치하여 지역개방형 공용시설로 거주자의 회합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개방

고령자주택 55호와는 별도로 일반임대주택 10호를 추가한 것은 고령자만이 거주하는 것 보다는 일반인이 같이 거주함으로써 다세대공생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의도

유이마루이가와다니_고령자시설과 고령자주택의 복합개발

서비스부 고령자주택 제도를 활용하여 세대, 건강상태,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른 다양한 거주자가 거주할 수 있으며,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식당과 담화실을 구비하고 다양한 스텝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입주자 건강을 체크하고 긴급 시 신속 대응

10년간의 임대료만 일괄지불하며 주호는 약 30㎡의 원룸타입에서 약 66㎡의 2LDK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각 주호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베리어프리로 설계

1층에는 방문 개호 및 단기스테이를 조합한 소규모다기능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재택간호시설이 병설되어 있어 몸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등의 증상이 심해질 경우, 같은 건물 내에서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자료:아오리 염철호 박사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공동체 회복

도시축소형 시대,외곽지역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료: KBS 명견만리 장건감독

2) 공동체 문화의 재생 전략

(1) 인간관계 강화를 통한 사회회로 재생

·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개인이 처한 문제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바뀌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사실은 다르다. 개인은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되므로, 조화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크리스토 퍼 알랙산더-

· 소득 보다 인간 관계가 생활 만족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이웃을 더 신뢰하는 도시가 생활 만족도도 높다.
신뢰가 소득보다 훨씬 중요한 행복의 열쇠이다

-찰스 몽고 메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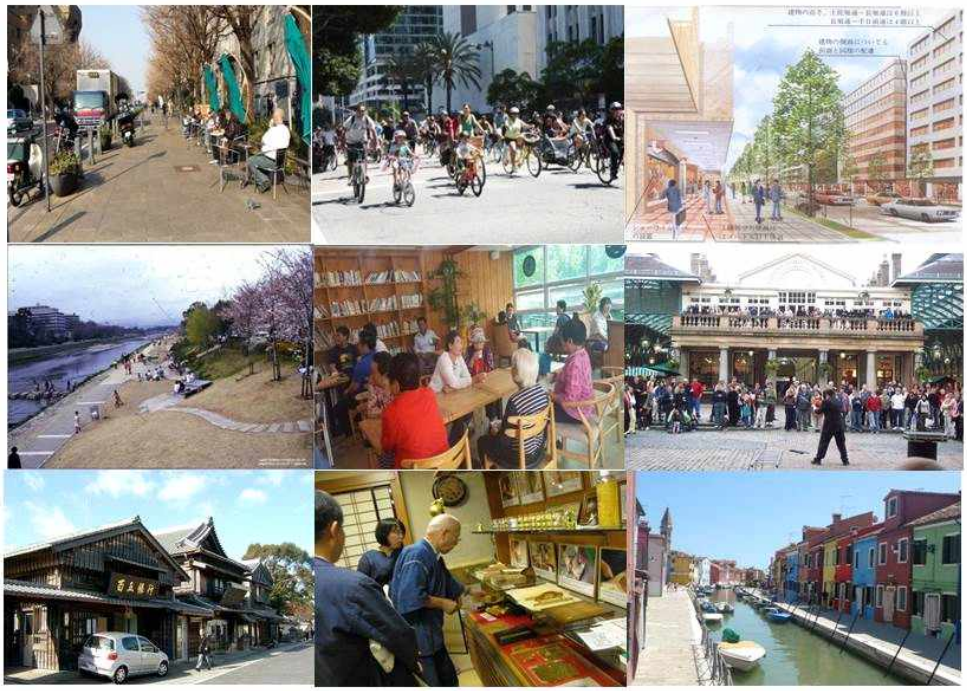
· 인간관계는 공유를 만들고 공동성을 낳는다. 공유는 일정의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방향의 축적, 안정성과 집중 성을 준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 경험과 관습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지식과 전통을 함께 쌓아 나갈 때 생산적인 사회적 회로가 생겨 난다. 이는 사회적 에너지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에 계속적인 이익을 제공해 준다

-데이비드 볼리어-

· 관계란 사회관계 자본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사회학에서는 커뮤니티와 어소시 에이션 (assocication)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한다. 커뮤니티는 지역의 공동체 의미가 강하고, 어소 시에이션은 공통의 관심과 목적으로 모인 테마 형 집단이다. - 사사키 마사유끼 -

· 미국인 만큼 부유하게 살게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풍요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바꿀 수 있다. 시민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걸어 다녀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며, 자연과 접촉해야 한다". 무엇 보다 더 "소외 당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과 평등하다는 감각을 느껴야 하는데, 이러한 힘은 도시의 공공공간에 있다.

-콜롬비아 (전)보고타 시장 엔리케 페날로사-



(2) 도시문화, 문화행정을 통한 공동체 문화 재생

· 도시 재생의 키워드는 문화와 환경이다.

· 산업화에 의해 파괴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문화를 부흥시켜 문화산업창조가 목적이다

· 기존의 건조환경 철거 에 의한 건설 폐기물 발생과 신축에 따른 재정낭비의 환경적 재정적 관점도 있다.

· 기존의 도시공간구조,노후시설, 장소가 만드는 문화구조를 재해석하고, 창조적 활동을 만드는 것이 문화재생이다.

· 기계문화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의 옛 것의 문화에 대한 복고주의적 향수적 관점도 있다

· 문화를 활용하는 도시재생은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가치에 바탕을 둔 독특하고 지역적이며, 일상과 관련된 버려진 사물이나 공간 재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 낡은 건물을 부수고 번쩍거리는 대형 건물을 짓는 방식의 재개발은 도시를 죽게 한다, 이것은 도시의 재건이 아니라 약탈이다.

· 새로운 아이디어는 낡은 건물에서 나오지 새로운 건물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 제인 제이콥스 -

· 예술가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봐라. 예술가 디자이너, 음악가, 저술가들은 도시개척자들로써 존재 만으로도 거주지의 부동산 값을 끌어 올리는 경제의 만병 통치 약이다 -2017 비즈니스 위크-

· 예술가는 주변환경을 스스로 생산한다. 포용력과 개방된 문화로 인재와 인적자원을 끌어 온다

- 리치드 플로리다-

폐허의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재생. 년 500만 명의 관람객 (영국 테이트모던)

오타루오

창고를 뱅크 아트스튜디오NYK재생 (요코하마)

오케스트라 심포니홀, 야래줄은 항구의 창고로써 보존하여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 2층 유리부분은 연주홀과 로비, 호텔, 식당등 부대시설로 사용,시민 기부금으로 재생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요코하마의 사례

"전위예술 중시, 대체공간 활용, 민간활력 도입"

1970년대부터

· 시민들과 함께 연극과 콘서트 일부를 유료화, 역사적 건물이나 창고등에서 공연

· 협의형 도시디자인의 공공공간 확대 ,민간건물 신축때에 용적율 증대와 그 일부 문화시설 활용

· 지정 관리사 제도 도입 및 민간이 문화시설을 관리운영 위탁 .

· 도심의 역사적 건물과 임해부 창고를 창조공간으로 재생'

· 시민을 코디네이트나 서포터으로 활용.

· (구)은행 지점 건물을 시민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아트뱅크 1929" 실시

· 기업과 함께 역사적 건물에 문화예술 활용사업의 운영단체 공모및 2년간 사업후 평가

· 민간의 인정 건축물, 등록 역사 건조물 지정및 보전 수리나 유지관리에 재정지원,

· 민간 시설에 시민활동 및 지원봉사 활동거점인 시민지원 센터 개설, NPO등에 저렴하게 임대

"도심에 문화예술의 새로운 활동거점 형성, 문화예술 창조도시 이미지 정착
역사적 건물재생의 성공모델 제시, 도심 활성화에 공헌, NPO가 큰 역할

4. 마무리

· 뉴욕타임즈가 2017년 꼭 가봐야 할 52개 장소중의 하나로 부산을 추천했다.
부산에는 도시여행, 소도시 여행, 골목길 여행, 테마 여행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여행을 모두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 종린-

· 도시재생은 경로의존성 을 벗어나는 사고가 필요하다

옛날에 로마군 마차는 말 두 마리가 끌었다. 유럽을 정복한 로마군은 마차의 폭, 즉 말 두 마리의 폭에 맞추어 유럽의 도로를 정비 했고 . 이 도로가 마차 선로가 되었다. 열차가 발명되면서 마차 선로는 열차 선로가 되었다. 로마군의 마차 폭이 열차선로의 글로벌 스탠드가 된 것이다 . 그리고 이 열차 폭이 로켓 지름을 결정했다. 로켓이 열차를 통해서 발사대로 운반되는 만큼 로켓지름이 터널의 폭보다는 넓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로켓 지름은 2000여년 전 로마군 마차로부터 시작된 도로 발전경로에서 시작되었다.

- 스텐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이언

제2강좌 : 마을과 문화, 도시재생

광주 빛깔을 담은
주민 주도형 마을재생

민 문 식
(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

『마을과 문화, 도시재생』
광주 빛깔을 담은 주민 주도형 마을재생

민문식(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

1.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식의 성장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을공동체(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지역과 마을에 대한 세밀한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을만들기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2000년 초기까지만 해도 '동네가꾸기', '마을가꾸기',' 마을만들기'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전문가와 시민운동 및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마을만들기'가 사용되면서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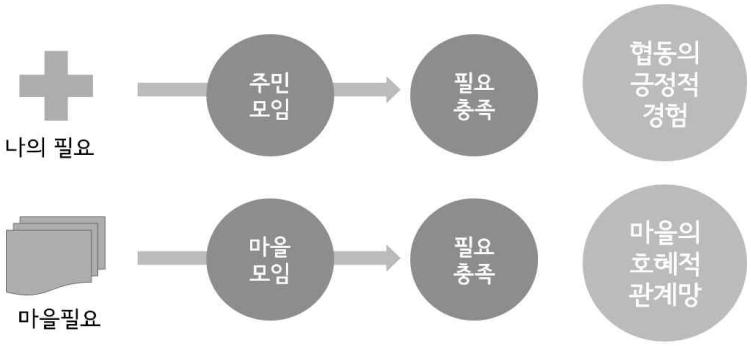
마을만들기라는 말은 일본 나고야시 에이토(영동)지구의 도시재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도시계획에 주민이 참가하는 길을 열었다. 일반화된 것은 1970년대 초 도로 확장을 위한 구획 정리나 맨션 건설에 따르는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무렵 대도시 내부 시가지의 쇠퇴와 함께, 그에 대응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내부 환경을 바꿔 재생시켜 가자고 하는 활동이 계획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환경(사물 또는 물리적인 구조물)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 공동체 형성 등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생활)까지 다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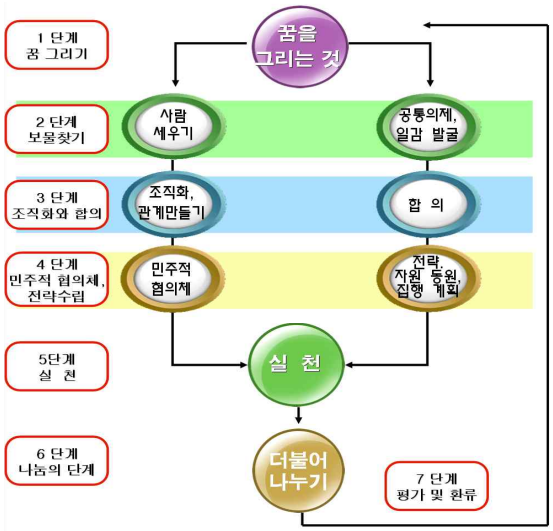
마을거버넌스를 통해 마을비전 제시와 마을발전 계획 필요

마을만들기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게 된 배경은 우선, 지방자치제의 시행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해결하는 활동이 활발해졌다. 두 번째는 시민운동의 변화다. 1970~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 중심의 활동이 1990년대 이후 생활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체 회복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세 번째는 주민의식의 변화다. 주민들이 자신의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시민으로서 책임감도 갖게되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터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향한다. 주민들의 활동은 주민과 주민 간의 관계, 즉 공동체(커뮤니티)를 통해 활성화된다. 초기엔 관계형성이 중요하지만 차츰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지역기관, 단체, 중간지원조직, 학교, 연구기관, 행정, 전문가 등의 유기적 협력관계, 협치가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비전 제시와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 도시재생과 긴밀한 연계고리가 만들어진다.

마을만들기가 대두된 이유는 우선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고도의 중앙 집중화와 지역주의화, 성장주의화 등 도시화로 인한 개인의 고립화·원자화가 발생했고, 지역에서 도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건설 과정에서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붕괴됨으로써 취약해진 사회적 복원력이 마을의 생활 자치로의 공간적 가치를 붕괴시켰다.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세대 간의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흐름

출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2007

마을민주주의를 통한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지역 내 도시재개발,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잡한 도시문제 증가 및 주민 수요의 다양성에 따른 행정수요의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서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마을민주주의'를 통한 '마을만들기'가 대두되었고, 그 주체로 마을공동체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마을 단위의 보육·복지 문제에서부터 지역 전체의 이슈가 되는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수요를 현장에서 파악,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마을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상의 필요를 협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망이다. 마을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초적이며 종합적인 터전이다.

거버넌스(governance)

종래 행정적 통치의 주체였던 정부(국가, 지방)가 그 일부분이 되어 시민(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와 협의를 통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한다. 시민참여형 도시만들기, 마을만들기의 궁극적 형태이다.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개 관(官)과 민(民)의 협치(協治)라고 표현한다.

도시재생

기성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도시 부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이다. 대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외부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 쇠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여 해당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쇠퇴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하여 도심 재활성화를 모색한다.

창조도시(Creative City)

2000년 영국의 도시계획자 찰스 랜들리가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2004년 유네스코는 미래산업발전의 모델을 '창조도시'로 설정했다.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과 사회적으로 다각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 발전의 원동력을 문화자본이라는 예술적 요소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사업 비교

도시재생사업은 마을만들기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비법정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기가 계기가 되어, 적은 비용으로 물리적・문화적 성격의 사업을 단기간에 걸쳐서 시행함으로써 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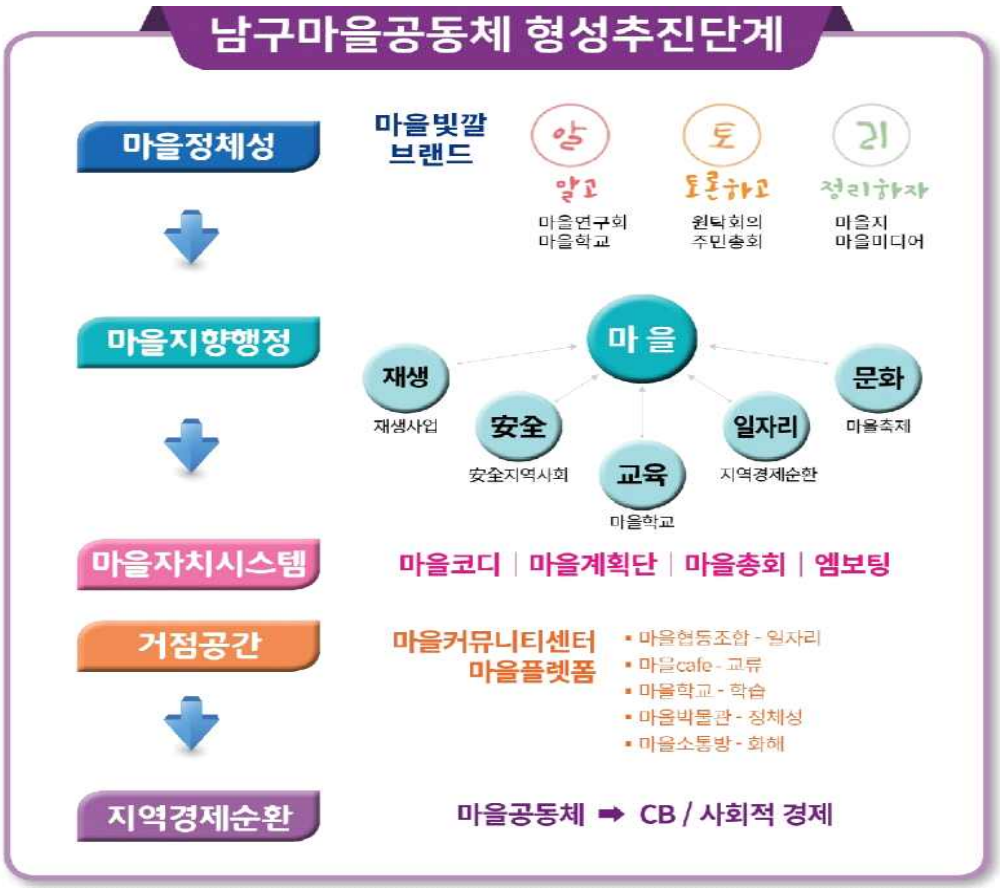
효과로는 마을단위의 장소적 숙원과제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풀어나감으로써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도시정비사업은 법정사업으로서 강력한 제도적 틀 속에서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업내용들이 물리적, 경제적 성격이 강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며 그 효과가 광역적이지만 주민참여가 제한적이며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마을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재생 사례

마을'알토리'와 마을정체성 찾기

흔히들 마을만들기를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구조물을 만들거나 꽃을 심는 행위 정도로 간주하곤 한다. 이러한 아이템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기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가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정체성 확보와 자치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작한 활동이 바로 마을 '알토리' 활동이다.

마을을 알고(마을 연구회, 마을학교), 토론하고(주민워크숍), 정리하기(마을지)가 마을공동체의 토대라는 확신으로 광주 남구 마을'알토리'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정체성과 빛깔을 찾고 입체적인 마을 활동을 진행하자는 선언이다. '마을 알토리'는 마을학습의 큰 방향으로 주민들은 마을역사를 알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마을의 빛깔을 찾아가는 민주적 참여과정을 익히게 된다.



마을빛깔로 행정과 연계해 실현

알토리 과정으로 마을 특성과 브랜드가 도출되면 마을계획을 활발히 수립한다. 수립된 마을계획은 행정의 다양한 예산과 사업으로 결합하기도 한다.

수 년 동안 마을알토리 활동으로 달뫼마을학교(알), 주민워크숍(토), 마을지(리)를 제작한 남구 월산동은 그 과정에서 '달뫼달팽이마을'이란 빛깔을 찾았다. 이 빛깔을 통해 '달팽이 목공소' '달팽이국수집' '달팽이마을학교' 등 여러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주거취약지 개선사업인 새뜰마을에 이러한 마을빛깔을 담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행정동	마을 브랜드	마을 로고	행정동	마을 브랜드	마을 로고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마을		월산5동	달빛어린마을	
방림1동	꽃피는 방젯골		백운1동	오순도순 까치마을	
방림2동	뽕뽕다리마을		백운2동	진다리마을	
봉선1동	부엉이 안심마을		주월1동	푸른주월리	
봉선2동	십시일반 나눔마을		주월2동	무등빛마을	
사직동	천년 선비마을		효덕동	효와덕이 샘솟는마을	
월산동	달뫼달팽이마을		송암동	희망을 가꾸는 벽화마을	
월산4동	수박등마을		대촌동	로컬푸드 향약마을	

남구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

마을브랜드 기반 마을 만들기

마을코디네이터와 마을계획단, 주민총회의 정착

다음으로 마을별로 자치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이다.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결정형행정시스템을 실질화하는 과제와 맞물려있다. 우선 마을별로 1명 이상의 마을코디네이터를 선정해서 마을회의를 정착시키고, 마을 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조직인 마을계획단이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을 일을 결정한다. 주민총회가 열려 마을 중대사를 토론하고 결정하며 엠보팅(모바일투표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정착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제가 쌓여있다.

마을공동체의 활동 터전, 마을커뮤니티센터

주민들은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커뮤니티 공간 형성에 대한 갈망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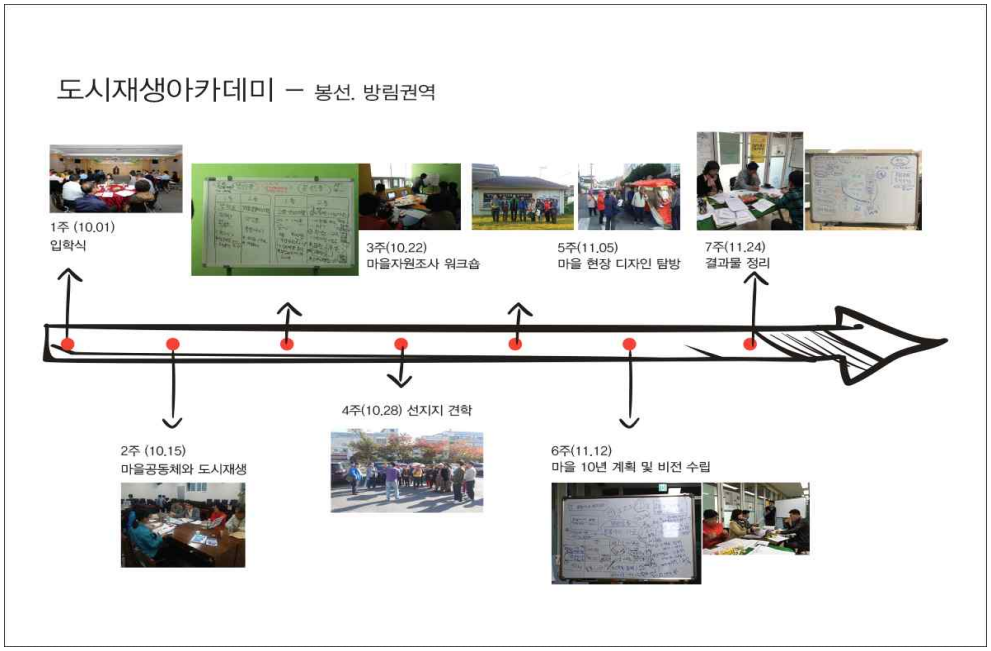
또한 커뮤니티 공간뿐만 아니라 마을 일자리가 결합한 수익창출형 모델에 대한 관심도 있다. 마을공동체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 CB)에 대한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4년부터 지역경제순환 시스템(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 추진, 로컬

푸드 직매장 설립 추진 등) 도입과 맥락이 일치한다. 대표적 예는 백운2동 진다리마을 커뮤니티센터(애칭 : 콩나물카페)이다. 주민들이 교류공간과 콩나물 사업을 통한 마을일자리를 고민하면서 추진되었다. 그 외에도 20여 개소의 마을커뮤니티센터가 추진되고 있는데, 마을카페와 작은도서관, 마을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학교와 마을갈등 해결을 위한 마을소통방도 추진하고 있다.

천년선비마을 사직동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018년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선정된 사직동은 2014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마을'알토리'활동을 시작했다. 사직동마을학교 운영, 마을워크숍, 마을지 제작 등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2016년 마을총회를 거쳐 '천년선비마을'이란 마을브랜드를 확정했다. '천년선비마을'이란 정체성을 중심으로 광주시 골목생생사업,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마을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들 역량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마을의 주체로 우뚝 선 사직동 마을계획단은 2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매월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며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재생 사업을 이끌어왔다. 특히 2017년엔 도시재생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주민 20여명이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해 주거지지원형으로 선정되었다.



3. 공동체 참여를 통한 문화적 마을재생을 위한 제언

광주의 빛깔을 담은 통합적 마을재생

광주의 전통과 지역적 특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마을재생사업이 설계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예술활동이 지역사회 변화와 커뮤니티 형성, 마을만들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도시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선순환 구조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가 갖는 문화 역사 자원을 긴밀히 연계하는 교육과정도 필요하리라 본다. 광주학과 도시재생의 결합은 지나칠 수 없는 과제로 와 있다.

주민참여와 계획 기반 도시재생

여전히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주체성을 찾아보기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공동체 형성 강화와 마을계획 수립, 마을 비전 제시, 마을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주민총회, 마을계획단 구성, 모바일투표 시스템 등) 도입과 인력(마을퍼실리테이터, 마을코디네이터,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청년활동가 등) 양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과정이 단단히 자리잡을 때 복잡하게 얽힌 도시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는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 본다.

청년과 지역을 연계한 활동 지원 강화

개별적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주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주체와 청년이 현장에서 만나 도시 재생의 핵심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결사체를 육성해야 한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연계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의 확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역량 있는 주민, 특히 청년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3강좌 : 폴리와 문화, 도시재생

광주 폴리와 도시재생

유 우 상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폴리와 문화, 도시재생』
광주 폴리와 마을재생

유우상(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1. 문화적 도시재생

재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도시정비방식은 양적 성장과 개발 논리에만 치우쳐 공동체 분열, 지역의 정체성 상실 등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뜻하는 말로 그 중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논하기에 앞서 문화가 도시정책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박은실(2005)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에 들어서 문화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문화정책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문화정책의 목표는 전통 문화 보존에 관한 것이었고 문화 예산의 60% 이상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후 문화정책은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 문화브랜드 등 예술을 활용한 산업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공공이 기업, 주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강력한 브랜드를 창출하는 선도적 개발 전략(Flagship development)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문화 주도형 도시재생 전략[1)]이 주를 이뤘다. 이는 문화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문화적 재생에 속하지만 성과주의 사업으로 사실상 물리적, 경제적 도시재생에 가까웠다. 이에 반발하여 문화정책은 주거, 복지, 여가, 교통, 생태, 공원녹지 등 생활문

1) 박은실(2005)은 Evans의 연구를 기초로 공공이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문화주도형 재생, 문화통합형 재생, 문화참여형 재생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화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아닌 도시 사회 운동(캠페인)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후 문화정책의 영역은 문화도시, 도시재생, 도시브랜딩과 장소마케팅 등 도시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지역의 '장소성'이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어 도시마케팅의 수단이 된 것이다. 이 시기의 문화 사업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아닌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및 문화거리 사업 등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이는 공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조명래(2011)는 문화가 도시재생의 화두가 되면서 문화의 도구화, 상업화, 식민화, 권력화 경향이 함께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이에 경제적 지표 중심의 이전의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도시재생의 정성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문화적 도시재생'은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소통이 증대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문화적 도시재생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수익성보다는 조직을 중요시한다. 이는 커뮤니티 형성 및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성의 회복과 공공공간의 가능성

우리의 생활공간은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소비의 기호에 지배받으며 점차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간은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가 공존하며 정치·사회·문화의 장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이에 하버마스는 공론장 개념을 통해 '토론은 사라지고 행정기관과 거대 기업의 전시·조작 활동만 남게 되는' 체제에 의한 일상의 식민화를 피하기 위해 '비판적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또한, 아렌트는 공공영역을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구체적 행위의 공간과 장소'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공공공간의 축소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의 상실이며, 자본과 소비에 의하여 공간 담론의 장이 침식되고 있다며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장소의 자본화에 의한 공적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공공간의 활용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공공, 주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공공공간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권력의 통제 기제가 작동하여 소외계층의 고립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3. 현대적 의미의 공공미술

공공미술의 개념은 미술이 건축의 영역에서 분리된 이후 형성되었다. 그 이전에는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2]으로 인해 회화 및 조각 작품들이 건축물 안에 놓여 전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1960년대 이후 대중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공공장소의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된다. 미술이 건축물 안의 장식적인 오브제에서 벗어나 공원, 광장과 같은 곳에 놓여 공공장소의 시각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공공미술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된다. 이 시기에 공공미술은 미술 작품 이외에 건축가 및 예술가가 디자인하는 시설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의 영역을 확장해나간다.

이후 미술 이론가 수잔 레이시(Suzane Lacy)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3] 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매체(회화, 조각)의 경계를 벗어나 설치, 퍼포먼스, 개념미술, 혼합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그들 스스로 환경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지역개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미술의 패러다임도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미술과 시민 사이의 소통과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공공미술과 차이가 있다. 이는 영구적인 설치보다는 일시적인 프로젝트로, 오브제 자체보다는 담론과 과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온 공공미술의 관행이 기존의 오브제 중심 공공미술 혹은 특정 장소 위주의 공공미술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2)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비의 1%를 미술작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3)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 모두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그들의 삶에 직접 연관된 이슈에 관하여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적 예술" 이자 "사회적 개입"(Suzanne Lacy,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1)

현대 공공미술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둘째,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정 및 조율에 부응하는 것, 셋째, 예술 불평등을 해체하면서 예술을 통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결국, 공공미술의 목표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소통과 교감을 지향한다. 예술은 그 매개로서만 기능할 뿐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현대 공공미술은 "도시의 공공공간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선에 기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들"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즉, 장소를 물리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회·문화·정치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공공미술은 문화적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하며 도시재생의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다.

4. 광주폴리

16세기 후반의 '폴리(Folly)'는 전통적으로 조경의 영역에서 쓰이던 용어로, 원래는 정원 디자인에 포함되어 프로그램이 없는 특이한 형태의 작은 집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장식의 오두막(Ornamental Hut)이라 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벤트나 장식을 위해 정원에 지어지며, 일상생활과 다른 특이한 감정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후 합리성을 중시하는 근대에서 폴리의 가치는 절하되었다.

이후 다양성과 우연성을 추구하는 후기 근대에 들어서며 폴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중세의 폴리가 자연 속에 묻혀 조형물의 성격으로 독립적이고 파편적으로 위치해 있던 것에서 벗어나 도시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폴리는 도시 안에 놓여 도시 맥락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어 '어번 폴리(Urban Folly)'라는 개념이 생겨난다. 어번 폴리는 구조화된 도시공간에 놓여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비구조화된 건축장치로써, 기존 도시 맥락의 한계를 극복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조공간의 대안이다. 어번 폴리는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광역시는 옛 광주읍성 유허의 발굴로부터 광주 민주항쟁의 담론의 공간적 해석,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공간에 문화를 접목해 구도심 곳곳에 공공미술 작품인 폴리를 설치하게 된다. 주로 조경의 영역에서 쓰였던 일반명사인 폴리에 광주만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 '광주폴리' 라는 고유명사를 사용

하였다. 광주폴리의 추진배경은 특색 없고 단조로운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함이었다. 더 나아가 도시브랜드로써 광주를 '폴리시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광주폴리 프로젝트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주관하여 세계적 건축가과 예술가들의 공공미술 작품인 '폴리'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이다. 2011년에 1차 폴리가 추진되어 2~3년 간격으로 3차째 진행되어 오고 있다. 각 차수마다 예술 감독과 큐레이터팀이 구성되어 새로운 주제와 장소를 결정한다. 선정된 작가들은 정해진 주제 안에서 공간을 재해석하고 작품을 구상한다. 재단은 작품의 기획에서 설치에 이르는 전 단계에 예술가, 지역민,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투어프로그램 및 지역청소년과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차 광주폴리는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 프로젝트로써 옛 읍성터의 흔적을 따라 10개의 폴리가 설치되었고, 이는 과거 광주 읍성의 존재를 알리면서 '광주 내 역사성 회복'을 주제로 한다.

2차 광주폴리는 디자인비엔날레 재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2차 폴리의 주제는 '인권과 공공공간'이며 1980년 5월 광주의 광장과 거리에서 일어난 민주화 정신을 8개의 폴리를 통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3차 광주폴리는 도시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1·2차 광주폴리의 과업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대중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도시의 일상성'을 새로운 폴리의 핵심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도시의 일상성은 이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공간생산론(Theory of Space Production)'에서 이야기하듯 도시를 경험하는 추상성과 진실이 직면하는 교차점이다. 광주폴리를 통해 공간을 생산하는 사회적 과정과 도시적 체험에 주목하고, 여행에서 도시를 경험하는 일상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맛과 멋'이라는 보편적인 화두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광주폴리3는 뷰(View)폴리, GD(Gwangju Dutch)폴리, 쿡(Cook)폴리, 뻔뻔(FunPun)폴리 4가지 구성유형에 서브 미니폴리(Mini)를 통해 광주의 미래를 담는 '도시 활성화장치(urban devices for revitalization)'이자, 동시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포토존의 장치로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

5. 광주폴리와 도시재생

1차 광주폴리는 2011년도 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예술 감독(승효상)에 의해 주제 및 장소가 선정되고 참여 작가 워크숍 및 현장답사를 거쳐 작품이 구상되었다. 작품의 기본디자인 결정은 공개적인 시민보고회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작품들은 보행도로를 침범하거나 주변 상인과의 마찰 등으로 설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1차 광주폴리의 주체가 대중이 아닌 공공의 일방적인 소통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차 광주폴리가 설치 전에 충분한 리서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주민과 소통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면 2차 광주폴리는 폴리시민협의회, 작품별 운영파트너, 참여단 등을 구성하여 추진과정에 있어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대국민 작품 공모와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한 점은 진일보한 점으로 평가된다.

3차 광주폴리는 1·2차 광주폴리의 문제점을 피드백 삼아 광주폴리운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3차 광주폴리는 지역의 정체성(미향·예향)과 브랜드 정체성(미디어아트창의도시)을 결합하여 보다 '광주다운' 폴리를 계획하였고 이는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에 기여한다. 하지만,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강조하다보니 장소 선정에 있어 동구에 편중된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사회적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6. 광주폴리의 정체성과 미래

광주폴리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도시의 폴리와 구별될 수 있다. 먼저, 광주폴리는 광주 도심에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새로운 폴리를 구상할 때 선행 폴리의 연장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사회, 시민, 전문가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마치 피드백 과정을 통한 디자인의 발전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런 반복적인 프로세스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많은 다른 도시의 폴리 건설과 다르게, 광주폴리가 광주의 사회, 문화, 정치적 지형에 맞춰져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광주폴리는 필연적으로 이전의 폴리들과 공간적, 맥락적, 기능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도심 속 문화 활성화장치로서의 광주폴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가 더욱 커진다. 폴리를 통해 문화가 생활영역에서 꽃피워져 문화적 재생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광주폴리를 하나의 완결체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정된 것으로서, 대상으로서, 상품으로서의, 완성된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창의적인 과정과 가치,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내는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민들의 삶이 변화될 때 도시가 재생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공간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삶이 우선되고 생활이 문화가 될 수 있는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할 때 사회는 공간을 통해 문화적 힘을 확보한다.

셋째, 광주폴리는 강한 프로그램의 수용체가 되어 간다. 현대 건축적 폴리의 시발이 된 라빌레트에서 시도한 비결정적으로 발생되는 우연과 사건 제공자라는 폴리의 개념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광주에 단계적으로 설치되는 폴리들은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보다 그 장소가 가지는 여러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시간의 켜를 고려하여 장소가 필요로 하는 기능 또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프로그램화하여 삽입한, 더욱 건축적인 모습이 되었다. 광주폴리는 공연, 독서, 화장실, 호텔, 식당 및 카페, 전망대 등 그 장소의 역사, 문화적 메시지를 또는 작가와 기획진이 의도하는 도시재생 차원의 마중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와 같이 광주폴리는 반복적인 프로세스, 동일 공간에 삽입되어 상호간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강한 프로그램이 삽입되는 실용적 구조물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광주폴리가 광주광역시의 성공적인 문화경관 형성과 도시재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체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광주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이해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공공디자인계획 등 도시재생관련 계획과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폴리 자체를 개별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폴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다양한 인프라를 고려해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폴리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도시의 맥락을 찾아 후속 폴리들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폴리를 위해 주민들이 관리 주체가 되어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폴리가 정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Suzanne Lacy(1991),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New york Thames and Hudson
박은실(2005), 도시재생과 문화정책의 전개와 방향, 문화정책논총, Vol.17
조명래(2011), (탈신자유주의적 공간과 공공성)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공간과 사회, Vol.21(3)
원향미(2014), 한국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화의 사회적 역할 연구-문화적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민족미학, Vol.13(2)
윤종필(2009), 생활 속으로 스며든 공공미술, 문화부평, Vol.17
김윤경(2004), 공공미술, 또 하나의 접근법:「행동하는 문화」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Vol.16
김유경 외 4명(2014),『공공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한경사
1차 광주폴리 평가서, 광주폴리평가단, 2013.
2차 광주폴리 평가서, 광주폴리평가단, 2014.
3차 광주폴리 평가서, 광주폴리평가단, 2017.
광주폴리 홈페이지 (http://gwangjufolly.org/)
천의영, 유우상, 위진복, Gwangju Folly 3: Where the Everyday and the Unexpected Intersect, Jap Sam Books, 2017

제4강좌 : 전통시장과 문화, 도시재생

1913 송정역 시장 프로젝트

윤 현 석

((주)컬쳐네트워크 대표)

1913 송정역시장

1913송정역시장 활성화 사업

지키기 위한 변화!! 청년과 만들어가다

송정역전매일시장
영동국밥
태형식품
태형
944-5637
011-605-4789

송정헤어타운
944-7478 / 7030
신일쌀상회
인삼

한우고기 도·소매 전문점
연대식육점
☎944-0334 · 941-8010

KIA MOTORS

시장상인의 고령화

시장점포의 노후화

시장점포의 유휴화

위험하고, 더러운 시장환경

매력이 없는 시장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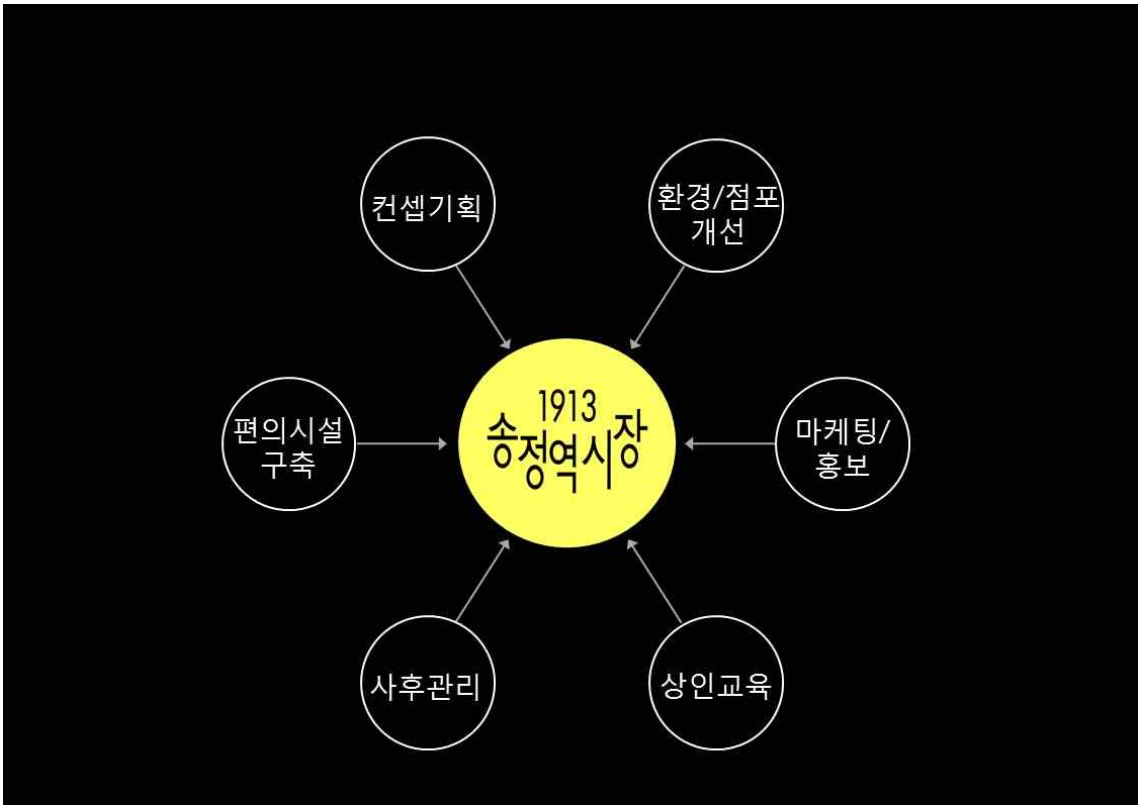
청년이 오지 않는 시장

상점가 매출의 저하

상 아
102
1913
송정역시장

1913
송정역시장

포시살



지키기 위한 변화

전통시장은 현대화 되어야 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상인들의 스토리를 사고 파는 장소

송정역 시장

·1913년도에 시장의 모습 형성
·1970년대 송정역이 생기며 호황
·수십년동안 장사해온 상인들이 모여있는 시장
·점포수 현재 62개

시간 時間

송정역시장은 상인 개개인이 지켜온 누적된 시간을 구경할 수 있는 시장

[시장의 누적된 시간]

오래된 점포 개성 특화
점포 시작연도 활용 시각화

[시간의 지속]

상인들의 스토리
신규/기존 상인의 조화

[새로운 변화]

버려진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재창조
토요야시장 개설

(자료제공: 현대카드)

100년 시간을 시각화

- 다양한 시간 연계 오브제 설치 (대형시계, 동판, 히스토리월 등)
- 기존점포 최대한 보존/복원 간판/파사드/상인스토리)
- 옛스러움과 현대가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 (조명/해가림천)

개발철학

- 바꾸기 위해서가 아닌 '지키기 위한 변화'

컨셉/방향성

- 100년 시간을 간직한 시장
- 문화관광형 시장

실행 결과

- 방문인원 증가 (20배 이상)
- 매출 3배이상 증가
- 공실률 ZERO
- 광주 핫플레이스/필수 방문코스
-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

시장 컨셉

100년 시간을
담은 전통시장

X

광주송정역
제2대합실

1913
송정역시장
태형식품
영광굴비
영광굴비

우량제분소

1913
송정역시장

매일 제분소
회상홍고

영광상회

영명국밥

라의상실
34
옷수선
맞춤
양장
리 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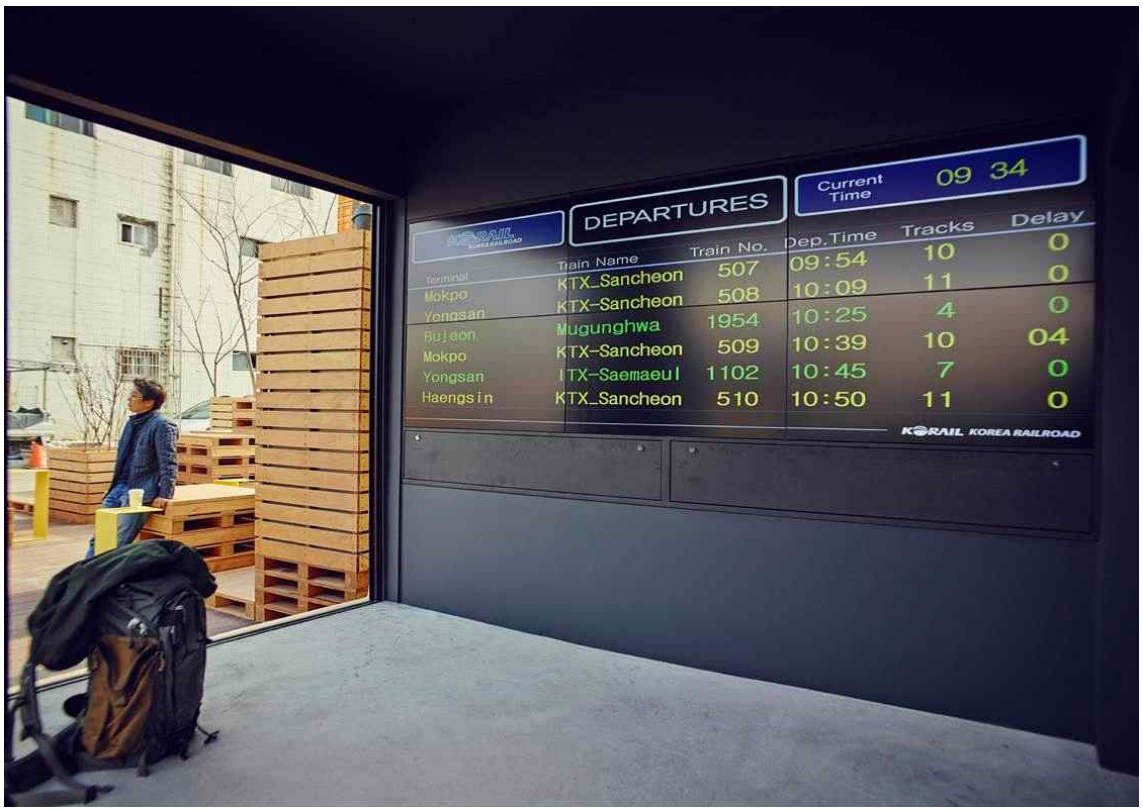
갱스넌
꼬지샵
또아식빵

광주송정역
제2대합실

열차 대합실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

- 실시간 열차안내 전광판 설치 (*국내최초 사례)
- 다양한 먹거리 제공 (*청년상인 모집/육성)
- 휴게공간 제공
- 공공 편의시설 제공 등

1913
송정역시장


DEPARTURES
Current Time 09 34
Train Name Train No. Dep.Time Tracks Delay
Terminal
Mokpo KTX_Sancheon 507 09:54 10 0
Yongsan KTX-Sancheon 508 10:09 11 0
Bujeon Mugunghwa 1954 10:25 4 0
Mokpo KTX-Sancheon 509 10:39 10 04
Yongsan ITX-Saemaeul 1102 10:45 7 0
Haengsin KTX_Sancheon 510 10:50 11 0
KORAIL KOREA RAILROAD

1913
송정역시장
문화와 추억의 창조전통시장, 꿈의 나눔터
1913
송정역시장

1913
송정역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 2015년 10월
  중소기업청 1913송정역시장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단 조직
- 2015년 11월
  설명회 개최 / 청년상인 모집 공고 및 지원자 신청 접수
- 2015년 12월
  청년상인 면접 및 최종 선발

- 2016년 1월 ~ 3월
  청년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선진지 답사, 워크숍, 상인 마인드 교육 등)
  청년상인 점포 인테리어 등 입점 준비
- 2016년 4월 18일
  청년상점 17점포와 함께 시장 그랜드 오픈

1913 송정역시장

1913송정역시장 청년상인

번호	점포명	대표	상품
1	느린 먹거리 by 부각마을	노지현	찹쌀 김부각, 과일칩, 과일시럽 등
2	밀밭양조장	이한샘	수제맥주
3	cafe 1913	김주성	홍삼라떼, 커피 및 음료
4	갱소년	선지혜	과일양갱과 양갱주스
5	역서사소	김효미	사투리노트,편지지,수첩,가방
6	계란밥	박강근	계란밥, 분식류
7	꼬지샵	손경재	꼬치 전문점
8	MIMI Bagle	이은지	쌀베이글, 수제 크림치즈, 음료
9	쑥's 초코파이	정화숙	수제 초코파이
10	고로케삼촌	정승오	고로케 전문점

BULLS

1913
송정역시장

고르케
샐러드

계 란 밥

갱소년

쑥's 초코파이

한끼라면

역전

누구나가게
먹거리
창조드림스토어

추진 프로세스

`15. 3월	4~5월	6~8월	9~10월	11~12월	'16. 1~3월	'16. 4월
- 추진위원회 발족 - 사업 설명회(1차)	- 환경 조사 - 상인 인터뷰/간담회 - 우수시장 견학	- 컨셉 기획 - 방향성 수립 - 상인교육 시작	- 컨셉 확정 - 디자인 구조화 - 스토리 발굴 - 사업 설명회(2차)	- 청년상인 모집 - 샘플점포 오픈 - 인프라 정비	- 기존점포 개선 - 청년창업 준비 - 편의시설 구축 - 사업 설명회(3차)	- 공식 오픈

해결과제

1913 송정역시장

- 시장 컨셉/아이덴티티 유지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프랜차이즈 입점 금지
-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실시

제5강좌 : 문화와 도시재생

문화와 도시재생

- 광주의 현 주소와 미래 -

안 평 환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문화와 도시재생』
광주의 현 주소와 미래

안평환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

<순 서>

Ⅰ. 서론
1. 왜 도시재생인가?
2.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이란?
3.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4.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어떤 일을 해요?

Ⅱ. 본론
1. 현황 및 실태
2. 문제점
3. 혁신방안(기본정책방향)
4. 기본추진계획

Ⅲ. 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

Ⅰ. 서론

1. 왜 도시재생인가?

1)저출산, 고령화 ⇛ 인구 감소
2018년 이후 점차 감소 전망 (고령사회) - 2026년 초고령사회

2)도시화율 90%대 진입 ⇛ 주택보급율 100%초과
광주광역시 주택보급율 104.5%(2016년 현재)

3)산업, 상업활동 감소 ⇛경제기반 약화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부진

4)도시환경 쇠퇴(전국 도시의 72%) ⇛ 도시활력 저하
- 도시경제 활력이 침체되고, 고용 및 세수가 감소(전국 시장점포 10.8% 공실)
- 2017년 광주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에서 가장 높다
(24,259명 중 24,259명 13,2%) (자료: 국세청)

5)주민생활의 질 저하 ⇛ 양극화 심화

6)도시외곽 위주 개발이 지속되면서 인구 유출 등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발생
무분별한 도시외곽 개발-도심 기능의 이전-원도심 쇠퇴 가속화

결국, 개발에서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기능회복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2.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뉴딜, 도시재생뉴딜이란?

1)도시재생_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활력(생명)를 불러 넣는 것(일)
(쇠퇴는 노후, 낙후 되어가는 과정적 의미)
(낙후/노후는 결과적 의미)

2)도시재생사업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투입해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

3)뉴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
cf)뉴딜(New Deal) : 대공항 + 경제정책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대공황의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

4)도시재생뉴딜

⇛쇠퇴한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3.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1)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을 지향하며, 결국은 쇠퇴한 도시를 살려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

2) 도시재생뉴딜사업 4대목표

❍사회통합 : 공동체 재생, 주민간 상생・협력
❍주거복지 실현 : 노후주거지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 : 창업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
❍도시활력 회복 : 산업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3) 도시재생뉴딜 사업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3년/50억)

❍주거지지원형
저층주거밀집지역에 골목길 정비, 주자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4년/100억)

❍일반근린형
골목상권과 주거지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거점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 (4년/100억)

❍중심시가지형
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증진지원**(5년/150억)

❍경제기반형
국가, 도시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복합행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6년/250억)

4) 도시재생뉴딜 사업자금

1년에 100곳, 10조 (5년간 50조 필요)
❍ 정부재정 연 2조원
❍ 공사투자 연 3조원
❍ 주택도시기금 연 5조원

<u>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재생</u>**
-공공예산(보조금): 뉴딜사업 국가보조 지원예산, 지자체 예산, 부처협업사업예산
-기금재원, 공기업 : 사업성이 있어야 참여
-사회적투자, 민간투자기금 :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참여하기가 곤란

4.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어떤 일을 해요?

❍ 센터는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적 협치의 거점으로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을 통한 광주형 도시재생의 안정적, 체계적 추진을 목표로 설립함.
❍ 비전(Vision) :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광주
❍ 사명(Mission)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자 통합적 협치의 거점. 전문성, 통합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촉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차별 없는 고른 성장을 돕는 것이 사명

Ⅱ. 본 론 (광주시 도시재생 정책을 중심으로)

1. 현황과 실태

❍ **도시정책이 "개발" 중심에서 "재생" 패러다임으로 진보**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 10개 분야 86곳 사업 총 17,011억원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 중앙공모(국토부, 행안부, 농림부)사업과 부처 유사 사업(투자선도지구) 등 분야별
선도사업 추진과 광주시만의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2. 문제점

○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 발굴 부재**
- 기초 인프라 시설,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일반적 사업으로 국한
- 타 도시에 비해 유형적 자산(근대건축물, 항구, 피난촌 등)은 적으나 무형적 자산(의향.예향.미향)을 활용하지 못함

○ **도시재생사업의 콘트롤 타워 역할 부족**
- 문화.관광.민간공원.투자사업 등 전반적 시정사항을 총괄할 권한부족
- 市 자체사업 부재, 국비 시비 교부 후 총괄 관리 역할 국한
- 총괄코디네이터, 현장코디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 소홀

○ **주민 참여 .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사업 미흡**
- 영세 주민(상인)의 젠트리피케이션 초래(대인예술시장, 1913송정시장 등)
- 사업 완료 후 마을학교.주민협의체 운영지원 중단으로 지속성 상실

○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아파트 공급으로 도심 공동화 가속**
- 낮은 원주민의 재 정착률(10~15%)과 중단된 정비사업구역의 슬럼화.범죄화

3. 혁신방안 (기본정책 방향)

○ **'광주다움의 회복'과 三鄕이 깃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무형 자산(5.18민주화운동, 대동정신) 활용
- ACC, 광주비엔날레, 남도문화 등 전통과 현대 예술 문화 콘텐츠사업 확대
- 광주 5味가 곁든 재생 접목으로 도시경쟁력 강화(관광 브랜드 . 상품화)

○ **도시 활력과 상생을 위한 '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 市의 조직 진단 확대 및 시.자치구.공사 등과의 상생 협약
-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광주역, 송정역, 대학타운 등)
- 역사.문화재생, 건축.경관 재생, 청년스타트업, 민간투자 등 연계사업

○ **관주도(Top-Down)에서 주민주도(Bottom-Up)방식으로 전환체계 구축**
- 주민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통합(재생사업.정비사업.마을공동체사업)
- 도시재생대학, 마을 학교, 연구포럼 등 도시재생역량강화 교육 지속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재생사업으로 순차적 변환**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매몰비용, 세입자 융자 등 종합대책 강구

4. 세부추진계획

1)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 **(단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 '18. 9.~'19. 6.
- 광주다움의 회복이 깃든 도시재생 비젼 선포('19. 6.)
-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권역별 재생 방향 재설정(재개발 등)
-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가이드라인 연계(도시계획과)

○ **(단기) 조직 진단 및 토론, 자문, 거버넌스 구축** : '18. 9. ~
- 도시재생.계획, 문화.관광.공원 등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 확대
- 전문가와 실행자가 참여한 연구포럼, 워크숍을 통한 사업 발굴
-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민.관.산.학 거버넌스 활용
- 도시재생사업사례 발표 한마당을 활용한 피드백과

○ **(단기) 노후주거지 소규모 주민 주도 사업 추진** : '18. 9. ~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골목재생사업
- 점 단위의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 지역 생활 밀착형 SOC 사업 발굴
- 모범적인 주민참여 마을자치모델 개발(동 단위의 거버넌스 혁신센터)

○ **(장기) 광주다움(三鄕)이 스며든 도시재생(뉴딜) 모델 개발**
- 의향이 깃든 교육.전시.체험 공간을 함께 담은 재생(거버넌스구축)
- 고려인 마을, 아시아 노동자 등 민주인권평화의 글로벌 재생
- 무등산, 근대건축물 등 HW와 문화.예술.관광 등 SW 융화 재생
- 전통시장, 아시아문화 음식거리, 청년 푸드 등 일자리 재생
- 광주역, 송정역, 대학가, 지하상가 등 혁신 거점 상생 협약 재생
- 대학병원, 성형.요양병원 등 의료 관광 맞춤형 재생

○ **(단기)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해제 지역** : '18. 9.~
-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뉴딜사업 우선적 공모
- 동명동 재개발 해제지역은 광주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
-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대책 수립 등 단계적 시행

2) 그 밖의 지역

❍ (중기) 공공기관(LH, 도공)이 참여한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 ICT, 빅데이터 기업의 스마트도시 기술 활용, 가로주택 정비사업
- 유휴 공공건물, 중단된 공사장, 폐교를 활용한 랜드마크형 재생
- 혁신도시 연계형 콘텐츠 개발

❍ (장기) 활성화지역 외의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개발.투자사업 등 총괄 추진단 별도 신설
- 광주송정KTX역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 광주역 달빛내륙 철도와 군부대 이전 사업

Ⅲ. 결론 및 제언

1. 광주 도시재생의 비전 실현은 "문화"로, 문화분야 중 문화콘텐츠사업과 미술로 집중.

❍수도권(서울, 경기 등) : 선진 일류국가를 선토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동남권(부산, 대구 등) :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호남권(광주 등) :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녹색산업의 창조지역, **아시아문화허브**

❍문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연결"시키니 못한 아쉬움
-광주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기술지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CGI센터(제작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원천소스 개발)인데
보여주기식 창조에 그쳐 문화가 밥이 되지 못함. 그 이유는 서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

❍문화콘텐츠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산업에 대비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콘텐츠 산업부가가치 유발계수 (0.781), 제조업(0,483)
-콘텐츠 산업고용 유발계수(명/10억원) (12.1명), 반도체(3명), 자동차(6.8명)

❍세계적인 광주비엔날레, 오지오/허백련 화백 등 미술 분야 자원이 풍부.

2.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복지 실현

-기존 노후임대아파트 주거문화 개선사업

-1인가구 증가, 고령사회에 맞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필요함.

❍ 광주시 주택보급률 104.5%로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음

-아파트 64.7%(특광역시 1위) 단독주택 32.5% 연립.다세대 2.8%

❍ 인구감소, 노후아파트 증가로 인한 멸실주택 발생, 대규모 개발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수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025년 기준, 30년이상 노후아파트 413개 단지(14,900세대) 예상(31.7%)

❍ 빈집특례법 시행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시행에 따라 빈집을 광주시가 매입, 시민자산화를 통한 시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예를들면, 청년들의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 광주빈집실태 : 2000년 13,741호(4.24%), 2015년 27,000호(5.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

□ 주택 통계

❍ 광주광역시 주택(아파트) 현황 (2017.12.31.발표, 국토교통부)

구분 / 연도	인 구 (내국인)	가 구	주택수					보급률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2016	1,469,214	569,372	594,992 100%	193,387 32.5%	384,750 64.7%	8,353 1.4%	8,502 1.4%	104.5%

❍ 타 시.도 아파트 비율 (2017.12.31.발표, 국토교통부)

지역 / 구분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체주택수	594,992	3,644,101	1,375,534	966,218	1,072,862	600,598	457,026
아 파 트 (비율)	384,750 (64.7%)	1,641,383 (45.0%)	750,122 (54.5%)	532,090 (55.1%)	588,563 (54.9%)	343,223 (57.1%)	256,003 (56.0%)

❍ 공공이 개발한 택지지구內, 아파트 비율이 높고 양적공급 개발

- 택지내 아파트(49.4%),전용면적 60㎡미만 소형아파트(45.4%) : 특광역시 1위
- 지역건설업체 비율이 他시 대비 높아 주택사업 활발히 추진

❍ 他지역에 비해 소득이 낮은 광주지역의 신혼부부·청년 등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수요에 못 미침

- 영구임대 대기자 3,291명, 행복주택(진월,하남,효천,우산) 입주 신청 : 3 대 1
- 도시공사가 시행중 행복주택 등은 재원대책 필요(국비30%, 기금 등 자체70%)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로 신혼부부·청년 주택문제 해결방안 마련**

- 광주시, LH, 도시공사, T/F팀 가동 : 정부지원정책 발굴 및 건의
- 신혼부부.청년 및 노인 등을 위한 "광주형 임대 주택 모델" 개발

※ 광주형모델 :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신혼부부 특화단지, 고령 무장애설계)

❍ **기존 노후임대아파트 주거문화 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시범 사업 추진, 신혼부부 등 공급 (전용면적 11평→22평)
- 전문가, 관련협회, 입주자 등 수요자 자문 및 의견청취 등

3. 5·18민중항쟁 재생 (정신,물질,일자리 등)

❍정신재생 -> 민주, 인권, 평화에서 공동체 재생으로

❍오월길, ACC주변 18개 골목재생 + 관광과 연계

❍스토리텔링으로 '히스토리(History)'를 518해설가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광주는 5·18민중항쟁의 역사 자원이 중심, 나머지 역사 문화 자원이 많지 않기에 기억하고 보존하는 전략이 최선.

❍518의 치유 기능 : 구, 국군통합병원을 치유와힐링파크로 전환

❍풍요로운, 따사로운 ⇒ 다양한, 맛있는 음식(광주만의 특색있는 음식메뉴 개발 필요, 전주-비빕밥, 광주-광주밥상/1만원대)

❍5·18, 민주주의 : 마케팅화 (골목공동체, 마을공동체 + 관광연계)

4. 아카이빙으로 새로운 자원 발굴 (무등산, 광주천, 극락강 등)

-과거의 자원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원을 아카이빙하여 새롭게 발굴, 그 토대위에 문화재생 전략을 수립.

❍무등산-무등정신, 극락강-극락정신, 창조, 혁신, 다양성, 청년, 돌봄 등

❍무등산 숲 생태를 95개동과 연결하는 "숲띠 연결, 숲터널 프로젝트"

광주고지도(흥선대원군때 제작한 지도) : 오림(5林) 양림 계림 방림 유림 덕림

❍광주천은 생태하천으로, 실개천은 복원

❍산업화 시설에 대한 재생

- 일신,전남방직 공장을 문화예술창고로 재생하기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청년작가들에게 맡긴다)

❍노후산단에 대한 재생

❍전국에서 Hot한 양림동

❍가능성이 높은 동명동

5.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과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기반 시설과 인프라 구축, 스토리텔링과 광주만의 소비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ACC 및 구도심과의 전략적 연계, 문화적 도심재생과 도시관광을 융합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강신겸).

❍ 문화적 도시재생이 광주의 문화와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나아가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다움을 지향하는 문화적 마인드와 지역경제와 연계할 아이디어와 전략이 요구됨. 시민들의 참여, 사업가들의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 이를 지원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협력이야말로 새로운 경쟁력'이며 핵심 성공요인인 될 것임.

문화적 도시재생전략 및 계획요소

분류	전략	계획요소
문화적 기반시설 조성	문화공간 조성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
		편의시설 조성
		기존 구조물, 녹지, 시설물 활용
		커뮤니티 디자인
		경관계획 및 디자인
	교통계획	보행환경 개선
		효율적인 보행접근체계 규축
		가로 환경 개선
		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체계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 및 활용	보존된 자원의 역사적 상징성 활용
		노후 건축물 재이용
		역사적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의 보존
		전통건축물, 문화재의 보존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 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도입
		주민 및 방문객 참여 유도
		축제 및 이벤트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문화 네트워크 조성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조직의 체계화
		커뮤니티 재활성화
		주민 중심의 지역 컨트롤타워 구축
	거버넌스 조성	주민·문화활동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 네트워크 구성
		민간·공공의 협력체계 구성
문화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	전통시장의 활성화
		소매업 활성화
		문화관련산업 유치
	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종사자의 유입 장려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입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 장소성 정립	도시마케팅 활성화	지역 홍보방안 모색
		도시 이미지와 매력성 제고
	문화적 정체성 구축	장소적 특이성 확보
		도시 내 상징성 제고
		지역조례 제정
		통합적 가이드라인 구축

자료 : 조연주(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6.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확산과 주민역량강화가 가장 중요. 이를 위해 도시재생현장전문가 100인 양성프로젝트 절실.

❍ 도시재생은 계획의 고유한 권한(도시계획, 재생계획 등)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자체가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 그 출발.
❍ 도시나 마을 계획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의 주체가 되는 시민들의 역량강화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시점.
❍ 따라서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 교육, 공감대 형성(시민, 거주자) 등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주민역량강화와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현장활동가)을 통해 전문가, 행정, 시민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광주공동체가 향후 장기적인 도시혁신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

7.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문화와 결합하고 주거까지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들이 모여드는 광주를 만들어가야 함. 이를 위해 도시재생을 담는 그릇은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 경제 영역에 청년들의 역할을 포함시켜 가는 것이 중요함. <송정역 1913>처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스타트업이 필요함.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함.
❍ 도시가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함. 청년들이 문화예술과 만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주거문제는 심각한 수준.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택이 필요한데, 행복주택, 쉐어하우스, 사회주택 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8.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유지관리차원에서 도입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다양한 시설들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립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우선 건물을 짓고 보자는 식으로 설계시공 위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 위주로 변화할 필요.

❍ 가용예산에 따른 적정규모의 접근방식 보다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정규모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경영학적 접근이 필요. 그러려면 행정으로부터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돈(운영예산), 조직(기획조직), 콘텐츠(킬러 콘텐츠)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준비정도는 매우 미약함.
❍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사업성과의 조화가 필요함. 두 요건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잘 관리하고 공공성+사업성의 조화를 유념하며 토론보다는 사회실험에 맞추는 관점이 매우 중요함.

9. 광주형 도시재생은 사람중심의 따뜻한 도시재생을 추구.

❍ 도시재생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임.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이미 79곳(31.3%)이 소멸위험지역이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있음. 또한,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2,239개(약 65%)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시 또한 원도심, 노후주거지 등 기성시가지가 쇠퇴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세수가 줄면서 20개 축소도시의 재정자립도는 30%이하. 이와 같이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 등 도시소멸의 위험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심은 개발수요보다는 가치공유, 사업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도시재생이 되어야 함. 도시는 사람(주민), 장소(공간),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민, 주민, 거주자 요구에 의거한 도시재생, 도시 내 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공공성에 기반 도시재생, 장소중심의 도시재생을 추구하며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을 만들어가야 함.

❍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도시재생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주민주도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추진되어야 하며 마을공동체는 도시재생과 연결되며,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의식의 변화는 사람재생으로 연결되어야 함.

❍ 현재 마을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자치·경제·문화·복지·교육·인권 등)이 도시재생 추진체계 안에서 만나고, 각 다양한 주체와 함께 협치 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음.

10.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도시(공간)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도시(공간)를 만든다

<참고문헌>

서민호(2018).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 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문
권혁삼(2018).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뉴딜 사업 추진 방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문
노경수(2018). 광주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포럼 발제문
류영국(2018). 광주시 주택현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포럼 발제문
강신겸(2018).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포럼 발제문
황희연(2018). 도시재생과 광주공동체에 대한 이해. 제4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대학 발제문
김현숙(2018). 지역문화 연계도시재생 사업화 방안. 제4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대학 발제문
조동범(2018). 도시재생의 시대. 자연에 대한 시선. 제4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대학 발제문
김항집(2017). 도시재생 뉴딜에 대응한 광주시 도시재생 방향. 광주도시재생 심포지움 발제문
윤주선(2018). 도시재생을 위한 변화와 각오. 광주형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 발제문
조명래(2011). 문화적 도시재생과 공공성의 회복: 한국적 도시재생에 관한 비판적 성찰.『공간과 사회』. 통권 제37호, pp.39-65.

참고자료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뉴딜) 현황

❑ 총괄 현황(10개분야, 86개 사업(추진중 69 예정 17), 1조 천억원)

❍ 도시재생 사업 : 5개 분야. 35개 사업, 1,368억원

- 중심시가지 재생사업(국비50%) : 4개 325억원
- 도시생활환경개선(국비50%) : 19개 617억원
- 새뜰마을사업(국비70%,시9%,구21%) : 4개 188억원
- 근린재생형 일반 도시재생사업(국비50%) : 2개 200억원
- 지역역량강화(국비50%) : 6개 38억원

❍ 시민주도 도시재생사업 : 2개 분야, 20개 사업, 41억원(시비)

- 생생프로젝트 : '16년(7곳 18억원), '17년(9곳, 18억원)
- 자치구 대표거리 : '18년(5곳 5억원)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3곳, 336억원(국271.5 시62 구2.5)

- 16년 사업 : 남구 월산동(국50%,시50%,) : 30세대 47억원
- 17년 사업 : 서구 농성동(60세대, 106억원), 광산구 도산동(50세대, 73억원)

※ 국비(토지.건축비 77.5%, 마을계획 50%),
시비(토지.건축비 22.5%, 마을계획 50%)

- 19년 사업 : 동구 소태동(60세대, 110억원)

※ 국비(토지.건축비 77.5%, 마을계획 50%),
시비(토지.건축비 22.5%, 마을계획 50%), 구비(2.5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 5년간 24곳 15,605억원(국50%,시25%,구25%)

-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요조사(129곳) : '17. 8.
- '17년 전국 68곳 : 3곳, 500억원(국비 250, 시비 125, 구비125)
- '18년 전국 99곳 : 5곳, 11,405억원(국비 700, 시비 475, 구비 225)
- '19년 ~ 21년 사업 선정 예상 : 16곳 3,700억원
  ※ 국비(1,600원, 시비 925억원, 구비 675억원)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 3곳 9.5억원(국50%,시25%,구25%)

- 서구 : 농성1동 공동체마을정원 / 총 사업비 4억원
- 서구 : 안녕, 양동 / 총 사업비 4억원
- 남구 : 사직애인 / 총 사업비 1.5억원

참고자료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년 추진계획

구분	사업유형	대상	총 사업비 (단위 : 억원)					비고
			합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총계		24	15,605	2,550	1,525	1,025	10,505	
`17년	소계	3	500	250	125	125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1	100	50	25	25		
	주거지지원형	1	200	100	50	50		
	일반근린형	1	200	100	50	50		
`18년	소계	5	11,405	700	475	225	10,005	선정
	주거지지원형	3	849	300	150	150	249	
	중심시가지형	1	400	150	75	75	100	
	경제기반형	1	10,156	250	250		9,656	
`19년	소계	5	900	450	225	225		
	우리동네살리기	1	90	45	22.5	22.5		
	주거지지원형	2	340	170	85	85		
	일반근린형	1	170	85	42.5	42.5		
	중심시가지형	1	300	150	75	75		
`20년	소계	6	1,900	700	475	225	500	
	우리동네살리기	1	90	45	22.5	22.5		
	주거지지원형	2	340	170	85	85		
	일반근린형	1	170	85	42.5	42.5		
	중심시가지형	1	300	150	75	75		
	경제기반형	1	1,000	250	250		500	
`21년	소계	5	900	450	225	225		
	우리동네살리기	1	90	45	22.5	22.5		
	주거지지원형	2	340	170	85	85		
	일반근린형	1	170	85	42.5	42.5		
	중심시가지형	1	300	150	75	75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8 생통교육(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8년 10월 22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8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